



가 가 품 내 양

일본

닭고기와 계란 구입시 가격을 가장 중시

일본에서 소비자들의 닭고기와 계란에 대한 소비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양계산물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닭고기의 경우 가격이 30.8%로 가장 높았으며, 원산지(26.9%), 품질(13.8%), 안전성(10.7%), 맛(8.4%), 가족이 좋아하는 부위(6.5%), 건강과 영양(2.7%), 기타(0.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란의 경우 가격이 47.4%로 가장 높았으며 품질(24.9%), 안전성(14.9%), 맛(4.9%), 건강과 영양(특수란 등, 3.7%), 생산자(3.6%), 기타(0.6%)로 나타나 닭고기와 계란 모두 산물을 구입하는데 가격이 큰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계란이 가격에 있어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품질과 안전성도 중시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닭고기는 수입산물의 비중이 커지면서 원산지 표시가 두 번째 중점사항으로 나타났다.(鶏鳴新聞)

태국

일본수출 확대 예상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수출이 부진하던 태국이 일본으로부터 11개 사업장에 대해 가열처리 닭고기 수입에 대해 개방을 하면서 수출에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후 22개 사업장을 통해 꾸준히 수입을 해왔으며, 이번 11개 사업장을 확대하면서 33곳에서 닭고기를 수입할 예정이며, 수입지정을 위해 수입 적합성여부를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태국은 일본에 272,167톤을 수출, 전체수출의 49.85%의 닭고기 수출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WP)

필리핀

닭고기 수출 일본에 이어 홍콩, 한국공략에 나서

필리핀이 아시아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일본에 많은 양의 닭고기를 수출해오고 있으며, 홍콩과 한국으로의 수출선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닭고기 수출에 있어서 홍콩 수출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한국도 수출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수출과 관련하여 필리핀 계육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해 필리핀은 1,540톤의 닭고기를 수출하였지만 금년에는 1만4천톤의 닭고기를 수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지난해 수출의 90%가 일본이었는데 금년에도 많은 비중을 일본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역시 종계산업도 활기를 띠었는데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병아리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30만수의 병아리를 더 생산한데 이어 금년에는 300만수의 병아리를 추가로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APM)

인도

시장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

인도의 식품회사중 하나인 VH그룹의 아난드 이사는 인도의 채란업에 도시인들의 소비와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콜드체인 시스템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아난드 이사는 인도의 계란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싸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소비와 수출 확대에는 실패작이라고 말하고 그 대안으로 콜드체인시스템과 위생관리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럴 경우 인도의 계란이 세계적인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이는 곧 채란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인도의 계란생산량은 1년에 400억개, 닭고기 생산량은 12억수이며, 가금육 수출액은 약 350억원(3천5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APM)

아랍에미리트

양계 발전 프로젝트 구상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축산발전 계획팀을 구성하여 앞

으로 1,700억원(600백만Dh)을 투자하여 축산업 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양계분야에는 우선적으로 85억(30백만Dh)을 투자하여 계란과 닭에 대한 공장신축 등 양계산업에도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며, 자국내 수급을 위해 노력해 갈 뜻을 밝혔다. 축산발전 개발팀에 의하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방문하고 돌아와 수입에만 의존해 왔던 국내 산업을 국내공급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의 1인당 가금육 소비는 77.4kg으로 이스라엘 66.6kg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로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PI)

중국

AI 백신개발 성공

중국이 조류인플루엔자의 신형 백신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백신은 철새(물새)로부터 가금류, 포유류, 사람에게의 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을 막을 수 있으며, H5N1아형조류인플루엔자 전용으로 개발된 2종류의 신형 백신이 이번에 과학기술부와 농업부의 합동 심사에 합격해 국가의 사용 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 백신의 테스트 결과에서는 백신은 철새에 대한 면역 효과가 높고, 백신 접종 후의 철새는 조류인플루엔자에의 감염을 완전하게 막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지난 청해성에서 발생된 철새의 죽음과 관련하여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에 개발된 백신이 이 지역과 주변지역에 긴급 수송되는 등 AI에 대한 엄중한 감염대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N)